

제주시민속요일시장 '주차장 유료화(1시간 무료)' 또 연기

“조례가 발목... 30분 무료 주차 고려”

2→3월 시행 연기 한달 만에 다시 추진 시기 재검토 현 제주도 공영주차장 조례상 '1시간 무료' 불가능

제주시민속요일시장 주차장 유료화가 조례상 걸림돌을 마주해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던 제주시민속요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 유료화 추진이 다시 미뤄졌다.

시는 지난해 말 장기 방지 차량, 시장 이용 목적 외 차량 주차,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일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발표했다. 무료 이용 가능 시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보다 30분 긴 '1시간'으로 시행될 방침이었다.

유료로 전환되는 주차장은 2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북촌화주차장과 166대 주차 가능한 노의 3번 주차장 등 2개소다.

당초 유료화 계획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3월 시행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번엔 관련 조례에 또다시 발목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유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문공영주차장과 중앙공영주차장 등 시장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공영주차장은 오후 8~10시까지도 유료로 운영된다.

이처럼 유료주차 시간 확대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료주차 시간 확대의 경우는 보다 까다롭다.

위 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되며 일괄적으로 최초 30분간 무료 주차가 원칙이다.

같은 조례에는 1시간 무료 주차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언급됐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민속요일시장 주차장에 대한 '1시간 무료 공영주차장' 지정을 도에 건의했으나 사실상 '불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해서 도에서도 1시간 무료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료화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오일장 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 등으로 상인회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왔다”며 “유료화는 시행될 예정이고, 1시간 무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이 30분 무료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 신축 기공식

지난달 28일 중문성당 뒤편에 새로 지어지는 '중문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 기공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범 4·3유족회장 등 내빈들이 함께 참석해 첫 삽을 뜨고 있다.

“제주의 눈물 닦아줄 참된 위로의 장소로”

‘중문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 기공식 개최 4·3 당시 학살터 기존 중문성당 기역권 활용 “내년 세계청년대회 연계 교황 4·3메시지 요청”

“이 성당은 과거를 붙잡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곳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신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중문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 (이하 기념성당) 기공식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교구장은 이렇게 강론했다. 기념성당 신자 등 참석자들은 기념성당이 “4·3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길 기대했다. 지금의 중문성당 뒤편에 새로 지어지는 기념성당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기념성당은 중문성당이 품은 비극의 역사에서 출발했다. 제주4·3 당시 중문면 집단 학살터 중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이 벌어진 곳 중 하나인 기념성당이 들어선 일제 강

점기 신사터였다. 중문성당은 4·3 영령들의 넋이 서린 땅에 신자들이 돌을 날라 지은 조그만 성당이었고 몇 차례 증축하며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이런 배경으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2018년 10월 중문성당을 '제주4·3 기념성당'으로 선포했다.

기공식에 앞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중문성당 고병수 주임신부는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청국장 신부”로 불리는 황창연 신부가 30억원 상당을 기부하면서 건립 사업의 물꼬를 튼을 보태는 등 전국에서 동참의 손길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창연 신부는 “4·3희생자들을 위해 기억하는 공간, 아픔이 있는 분들을 치유해주고 평화를 찾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라고 말했다. 건축 설계를 맡은 김정신 단국대 명예교수는 “5% 경사의 남북 역삼각형 모양의 대지는 기승전결의 배치 개념을 적용해 진입 공간, 기념탑, 전면 광장, 성당으로 구성했다”며 “기존 성당은 1957년 건축된 원래의 부분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해 '치유와 평화의 기역권'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문창우 제주교구장은 기념성당이 “제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참된 위로의 장소. 치유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기간에 방한하는 레오 14세 교황을 건립 프로젝트에 맞춰 제주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교구장은 “WYD를 앞두고 이 성전의 의미를 담은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세계사적인 상황과 관련해 4·3이 지닌 치유와 평화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정식으로 교황님의 제주 방문 또는 4·3희생자를 위한 메시지를 요청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3시간 단속유예 연장

제주시, 상권 활성화 등 고려해 12월까지 시행 교통 혼잡한 중앙로·동문로 등 5개 구간은 제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1시간 확대(2→3시간)하는 제도가 12월까지 연장된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시행해 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삼수로, 신광로, 노연로, 신

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엔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등 5개 구간도 단속 유예 제외 구간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달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교통 혼잡 가능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에선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는 중앙로 등 이번에 추가된 단속 유예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1~15일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단속 유예 시간 연장과 제외 구간 추가는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중간보고회

버스정류장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정류장과 휴양림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도입해 운영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문화관에서 열린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중간보고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정경에너지로 만드는 녹색 삶의 도시, 제주’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 7GW 보급, 수송·건물 부문 전전화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등을 목표로 수립되는 제주형 에너지 대전환 실행전략이다.

제주도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버스정류장 7곳에 태양광과 재활용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대기 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정류장 표준모델로 삼는다.

또 교래자연휴양림에서 태양광과 재활용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등을 결합한 RE100 캠핑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 뒤 도내 공공야영장과 관광지도 확산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